

# 북한 각급 학교교육의 의미와 변화방향\*

김정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garden@kedi.re.kr

## I. 서론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경제 운영체제는 이전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제 북한에서도 토지이용권 보장 등, 사적 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토지 사용료 납부 규정’을 민법에 포함하는 등, 세금제도가 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남성욱·정유성[2012]). 또한 주거시설 매매 등 비공식적 경제가 공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북한을 사회주의체제로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경제 운영체제의 변화는 북한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와 연결된다. 배급제의 붕괴로 더 이상 실질적인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는 주민 이동금지정책,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전파되는 중국과 한국의 영상 매체 등은 경제체제 변화와 함께 북한주민의 인식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은 북한주민에게 이제 집단보다 개인이, 사상보다 물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여러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이우영[2011]).

북한에서 학교교육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 기관으로 작동해 왔다. ‘주체형의 혁명인재 양성’(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3조)<sup>1)</sup>을 교육의 목적으로 표방하면서 초·중등 교육을 비롯하여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앙에서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그 교수방법과 시간까지 통제하는 형식의 교육제도를 북한은 오랫동안 유지해

\* 본 글은 김정원·김지수·양희준·강구섭·나귀수·신동훈·김선,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2015 중 필자가 작성한 제1장과 제6장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접속일자: 2016. 5. 23).

왔다. 최근(2012년) 학제 개편과 그에 따라 전면 개편된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에는 이전과 달리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등, 국제교류를 의식한 실리 중심의 개편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지도자 우상화 교육은 더욱 강화되고(김정원 외[2015a]), 학교교육의 세부 일정까지 중앙수준에서 통제하는 등, 기존 제도의 특징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정원 외[2015b]).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방되는 북한의 교육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사적 경제가 확대되고 사회·문화 전반에 개인·물질주의적 성향이 확대되고 있는 북한사회 내에서 학교교육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공식적 법령 차원의 제도가 아닌 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나 관행으로 존재하는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북한의 학교교육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이 글은, 북한 사회구성원들이 각급 학교교육에 부여하고 있는 규범적, 실제적 의미, 곧 북한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구현되고 있는 학교교육의 의미를 드러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폐쇄된 북한사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차원적 변화 양상을 학교교육 차원에서 포착할 수 있게 해주어 북한사회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비교적 최근(2007년부터 2014년)에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 중에서 북한에서 소학교와 중학교 교원<sup>2)</sup>으로 재직했던 이들과의 집담회 자료<sup>3)</sup>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소학교와 중학교 교원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한정되어 있어 특히 고등교육 부분에서 전문학교나 대학교에서 교원을 했던 이들과의 개별면담이나 협의회 등으로 집담회 자료를 보완하였다.<sup>4)</sup>

## II. 북한 각급 학교교육의 의미

최근 북한은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으로 확대하면서 소학교 교육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6년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한다는 것이 이 학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첫 공식 법령으로 발표된 이 학제 개편에 따라 북한은 2013년부터 6년제 중학교를 초급과 고급으로 분리

2) 북한에서는 교사를 교원이라 부르며 대학교수도 대학교원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사와 교원을 혼용할 것이다.

3) 이 자료는 각급 학교교육을 받는 이유 등의 질문을 토대로 총 6명의 탈북교사들과 4시간에 걸친 집담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것임.

4) 자세한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의 원천인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연구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5b, pp.7-13 참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초·중등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14년부터 각급 학교 1학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학제 개편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북한 학제는 1972년에 개편되었던 것으로서(김지수 [2013]) 40여 년간 북한사회에서 작동되어 왔었던 것이다. 이 학제가 적용되던 기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84년 평양제1중학교를 기점으로 각 도에 제1중학교들이 설립되어 평등교육을 주창해 오던 북한에서 본격적인 엘리트교육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조정아 [2007]). 2002년에는 애초 인민학교라 불렀던 초등교육기관이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라 불렀던 중등교육기관이 중학교로 그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다(북한자료센터[접속일자: 2016. 5. 20]).

이 글은 최근 개편되기 전 학제를 토대로 북한 사회구성원들이 각급 학교교육에 부여하는 의미를 북한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sup>5)</sup> 교사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은, 학교교육이 갖는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주체가 교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스스로의 학생 시절의 경험, 학교 교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녀를 기르는 학부모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다양한 입장에서 한 사회 내의 학교교육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다고 보았다.

## 1. 유아교육: 유치원

### 가. 소학교 준비교육으로서의 높은반 유치원 교육

북한에서는 만 0세부터 3세 아동은 탁아소에, 4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은 유치원에 보낸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기간은 3년이 아니라 유치원 낮은반 1년, 높은반 1년, 총 2년이다. 만 4세부터 6세 사이의 아이들이 유치원 낮은반이나 높은반에 간다.<sup>6)</sup>

낮은반 유치원은 돌봄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높은반 유치원은 소학교 교육을 위한 준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양자 간 구분이 분명하다. 탁아소나 유치원 낮은반은 보육프로그램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지원장치라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맡아 줄 부모 등의 가족이 없을 경우에 탁아소나 유치원 낮은반에 아이를 맡긴다. 소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유치원 높은반에 보내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할 누군가가 있으면 굳이 비용 부담을 안고 유치원에 보내려 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5) 이 장에서 ‘~이다.’로 기술되는 각급 학교교육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으로 인식되고 있다.’로 이해되어야 한다.

6) 공식적으로 표방되는 북한 학제에서는 만 5세에 유치원 높은반을 가고 만 6세에 소학교를 가게 되어 있지만, 탈북교사들은 주로 만 6세에 유치원 높은반, 만 7세에 소학교를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교육통계에서도 만 6세 소학교 재학 학생들은 소수이고 소학교 재학생 수 대부분이 만 7세이다(DPRK[2014]).

있는 가정에서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보다 피아노 등의 특기교육을 시키면서 주로 가정에서 데리고 있는 것을 선택한다. 그에 비해 유치원 높은반은 자녀를 소학교에 보내기 1년 전에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치원 높은반에서 숫자와 “우리말 교육”, 집단생활이나 음악, 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기본 학습을 해야 소학교에서의 적응이 보다 쉽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의 낮은반 같은 거는 출석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높은반은 초등학교 교육을 받자니까 할 수 없이 한글이나 그저 우리말 같은 거 배워야 하니까 무조건. 뭐 ‘높은반은 무조건 가야 한다.’ 이런 공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女, 소, 2007)<sup>7)</sup>.

북한에서도 보면 유치원을 학교 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 자녀들, 돌봐 주고 하는 거는 낮은반 단계라고 하면, 높은반 단계는 학교 전 교육을 위주로 해가지고 애들이 연령상 특성에 맞게 율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女, 중, 2013).

시장에서 오늘 벌어서 오늘 하루 살아도, 유치원 높은반은 꼭 보내려고 하더라구요(女, 중, 2010).

#### 나. 시설환경이 좋고 “팔아먹기 좋은 특기”를 잘 가르치는 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높은반이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북한의 모든 학생들이 유치원 높은반을 다니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학령기 아동조사를 유치원 높은반 입학 전에 시행하였지만, 지금은 소학교 입학 전에 한다. 일반적으로 소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유치원 높은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의무교육에 포함된 유치원 높은반에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먹을 양식을 비롯하여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점 때문에 경제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한다.<sup>8)</sup>

네, 더 나빠진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낮잠 잘 때는 침대에서 자고 간식도 먹고 했는데 우리 애들은 내가 가져간 쌀을 먹고, 베개, 식기 이런 거 다 가지고 갔거든요, 유치원에. 거기에서 내라고 해요(女, 소, 2007).

7) 탈북조사들의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성별, 재직했던 학교급, 탈북연도 순으로 발화자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8) 북한은 UNESCO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2008년도 기준으로 5-6세 유치원 교육 시기 아동의 96.3%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이것이 100%가 아닌 이유는 6세 아동 일부가 소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DPRK[2015], p.24).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원하는 유치원을 찾아서 아이를 보내기도 한다. 의무교육제도상으로는 거주 구역 내 유치원을 보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부모들은 우선 시설환경이 좋은 유치원을 선호하고 그와 더불어 무용, 악기(바이올린, 피아노, 드럼 등) 등을 잘 가르치는 유치원을 찾아서 보내는데 자녀가 유치원에서 “팔아먹기 좋은” 그런 특기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기를 익힌다는 것은 북한사회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서나 특기를 가진 사람을 중요시한다. 매년 유치원, 학생, 일반인 등 부류별로 축전을 개최하며 주요 명절에 앞서 “충성의 노래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므로 학교나 기업소 등 각 기관들은 특기를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을 강조했던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간부집 자식”들이 대거 예술학원에 진학했었다.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실리적으로 변하여 자녀가 “먹고 살기 불편한” 예술단에 들어가길 원하기보다는 공부를 해서 ‘법관’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예능 방면의 특기를 가지면 “팔아먹기 좋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특기를 보유하기를 기대한다.<sup>9)</sup>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대학에서도 “인기가 있고” 군대에서도 아주 쉽게 군대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부”가 우선이지만 “특기”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 학부모들의 기본 인식이며 유치원 선택의 주요 기준이 특기교육인 것도 이 때문이다.

80년대 말에는 예술이라고 하면 정말 간부집 자식들이 다 갔습니다. 그때에는 예술의 왕국이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예술하는 애들은 정말 힘 있는 집 자식들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군데 이제는 살아 보니까 부모들이 먹고 사는 데 편리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기본은 북한에서 직업이 법관이 아닙니까, 법관이 다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예술단 같은 데 가는데 먹고 사는 데는 정말 불편한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공부를 다 시키자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중앙대학 졸업증을 따야 법관도 하고 무슨 간부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도 군데 예술을 버리진 않았습다. 왜 그런가, 해마다 충성노래 모임이 있습니다. 2월 16일, 4월 15일, 설날 이럴 때마다 그 악기 치는 분들을 막 찾는데, 그때 내가 무슨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이라 하면 그 악기 치는 분을 막 찾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른 데에서 막 빌려 안와도 되거든요. 직장 사람들 해가지고 충성의

9)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때도 우리 학생들은 그니까 북한에(서는) 재간이 있으면, 북한식으로 말하면 팔아먹기 좋거든요, 북한에서 매해 축전이 있어요. 아동방송 축전, 그것도 유치원하고 학생, 경연으로 나눠서 6월달에 진행되고요, 유치원 축전, 학생 축전은 세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경연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인데 일단 거기에 가면 좋으니까, 우리 학교도 고난의 행군 때 저 때문에 살았죠, 교장 선생님 부장 선생님 다. 그 학부 형들한테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생활이 유지됐죠(女, 소, 2007).”

노래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악기 같은 거 지금도 개인적으로 배워주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습니다(女, 중, 2014).

유치원에서 몇몇 부모들이 유치원을, 지역별로 유치원을 대개 보내는데, 이것도 나중에 어느 유치원에서 춤을 더 잘 배워주더라, 노래를 더 잘 교육을 주더라, 해가지고 그(거주) 지역을 떠나서 좀 자기 자식들을 보내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같지는 않겠죠. 제가 살던 데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옆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쌀도 내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유치원에 못 보내지만 (女, 소, 2007).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이 되기 위하여 유치원장은 뛰어난 특기를 지닌 교원(“교양원”)들 확보에 매우 신경을 쓴다. 각종 특기에서 우수한 유치원교원을 확보한 유치원은 축전 등에서 수상을 하여 유치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러한 유치원에는 경제수준이 더 높은 학부모들이 몰리게 된다. 교원대(교원분과 2년)를 졸업하는 예비 유치원교원들은 수준 높은 유치원에 배치 받으려 애쓴다. 학부모의 지원에 의해 살아가는 교사들에게는 근무하는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sup>10)</sup>

그런데 교양원 하면 지금은 우선 2년, 2년 동안 대학 졸업하면 시집갈 때 간판이 좋지 않습니까. 그걸, 그 다음에 생활과정이 쉽고 2년에 한 번씩 졸업시키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선.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들이 자기 교원을 받는 기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누굴 뽑겠는가, 수준 있는 선생님들을 얻고자 하고, 잘하는 선생님이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무용 잘하는 선생님을 얻으면 무용 잘하는 유치원이 되고 바이올린 잘 타는 선생님이 가는 유치원은 바이올린 잘하는 유치원이 되고. 그 선생님들을 보면 바이올린을 잘 타는 선생님이 오셨다 하면 그 선생님한테는 학급을 1, 2학년 때는 맡겨주지 않고 재간 있는 선생님한테 관심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잘 배워달라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우선 배워줍니다. 그래서 유치원 경연 축전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출전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 유치원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선... 그런 유치원들은 학부모들이, 다 돌보미가 있으니까 유치원 설비 자체도 좋고 (학부모들이)

10) 북한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담임선생님에게 졸업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소학교는 4년, 중학교는 6년(2012년까지)인데 비해 유치원은 매 2년마다 학생들을 졸업시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졸업선물(TV 등 가전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치원 교사를 인기 직종이 되게끔 한다. 북한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유치원을 비롯해서 모든 교원은 출신 지역, 출신 대학, 그리고 지역별 교육기관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에서 교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 교육기관과 예비교원들 사이의 사전협약이 중요하여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의 유치원에 배치 받으려는 예비교사(교양원)들과 유치원 원장 사이에 사전 논의가 진행된 결과에 기초해서 공식적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내라고 하면 다 잘 내니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으로 말하면 회장유치원 하면은 제일 중심적이면서 인기 있는 유치원으로, 일 년에 축전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가서 일등도 하고 이렇게 오고. 그런 이미지도 얻고 좋습니다(女, 소, 2011).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지역으로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이런 특기교육에 이름난 유치원을 찾아 보낸다. 이름 난 유치원은 재원생들의 가정 배경 수준이 높아 학부모들의 힘으로 보다 좋은 시설에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유치원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고자 애쓰고 예비 유치원교원들은 이런 유치원에서 근무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간 수준 차이는 계속 커진다.<sup>11)</sup>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이 손퐁금 친다, 그러면 그 선생님 반으로 옮기고, 또 선생님이 아코디언 친다 그러면 그 반으로 옮기고, 막 부모들도 그 뇌물이 오고 가고... 되게 원래 교양원들이 인기 많은 직업이잖아요. 웃음, 2년에 한 번씩 졸업하니까 ... 소학교나 그 중학교보다도 더 인기 좋더라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애들 한두 명씩 낳고 하니까 관심이 더 학부모들의 열의가 어릴 때 제일 높잖아요. 점점 커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진짜 많이...(女, 소, 2007).

애들이 집중되는 데는 많이 가고, 집중된다는 거 자체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 학부모가 대주는 거니까. 예산을 받아서 건물도 새로 유지보수도하고 설비도 새로 악기별로 사오고 해야만 애들이 많이 오니까(男, 중, 2013).

## 2. 초등교육: 소학교

### 가. “정확한 교육”, “집단생활”을 배우기 위해 소학교는 당연히 가야

소학교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북한사람들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들도 입학식은 참가한다. 북한에서 소학교를 가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모들은 학교에서의 “집단적 생활”이 중요하고 학교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sup>11)</sup> 한 유치원 내에서도 담당 교원의 특기 소유 여부에 따라 인기가 차이가 많다. 인기 있다는 것은 뇌물을 주어서라도 그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급으로 자녀를 옮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창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 현재는 출석률도 상당히 높아졌으나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지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전에는 98% 이상의 출석률을 요구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85% 수준으로 만족하는 상황이다. 출석률이 낮아지게 된 것은 개인 학생 가정상황이 어려워진 탓도 있으나 공식적인 학비가 없는 가운데에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에 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은 탓이 크다.

출석률을 보면 제가 95년 이전에는... 이제 98% 이상이 되어야 교장이 만족했었 거 든요. 근데 97년 이후부터는 85%라도 보장해라, 이게 이제 학교의 윤리로 들어 갔어 요...이제 학교에서 경제가 없으니까 학교를 운영하려면 다 학교 자체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은 교사들에게 과제를 줘요... 교사들에게 떨어지면 교사들은 방법 없어요, 학생들을 출석부 점수, 등수에 한해서 출석부 번호에 한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가져와라, 다음날은 5번부터 10번까지는 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한테 그게 진짜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출석률이 엄청 낮아지고 어머니들이 돈이나 셀 줄 알면 된다. 그래서 안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았고, ‘85%라도 이제 보장해라’라는 게 교장들의 요구였어요(女, 소, 2007).

#### 나. 수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학급 선택: “국어, 수학만 잘해라”

소학교에서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배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국어와 수학이다. 교육과정 상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상교육이지만 실제 부모들의 관심은 국어, 수학에 있다. 혁명역사와 같은 과목이나 그 밖의 과목에 비해 이들 과목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은 제1중<sup>12)</sup> 진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과라 인식해서 어느 학교에 이름난 수학 선생님이 있으면 그 학교를 찾아 자녀를 보내기도 한다. 제도상으로는 소학교 학생 배치는 거주 지역별로 구획 지워진 학구별로 이루어지고 학교 내 학급 배치도 지역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소학교 단계에서도 이름난 수학 교사, 혹은 그 교사가 운영하는 수학 소조를 중심으로 학교와 학급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학교 선택은 학생이 속한 학구를 넘어서서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름 난 수학 교사가 있는(그 수학

12) 현재의 ‘제1중학교’는 북한에서 중등학교를 ‘고등중학교’로 명명하던 시기(1972~2002년)에는 ‘제1고등중학교’로 불렸으며, 이에 현재 성인 세대들에게는 “1고등”이라는 명칭이 더욱 익숙하다.



교사가 이끄는 수학 소조가 있는) 학교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며 수학 교사, 특히 실력이 있다고 알려진 수학 교사가 맡는 학급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급이 된다.

학구별 학생 배치를 어렵게 하는 이 수학 소조를 당국에서는 없애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 차원에서는 이 수학 소조가 학교 운영을 돕는 중요한 기제라 할 수 있다. 수학 소조를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는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국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이들에 의지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의 소학교 교육에서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수학교육이며 수학을 중심으로 학교 및 학급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소학교 교육에서부터 제1중 진학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별 교육기회의 격차가 만들어지는 토대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는, 소학교 교육에서 기본은 국, 수 거든요... 그때는 그저 국, 수, 학부모들이 제일 바라는 게 국어, 수학만 잘해라, 그러면 중학교 가서 얼마든지 다 잡을 수 있다... 그니까 그 1중 붙이는 것도 실제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라는 게. 여기처럼 무슨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반대로 해갖고 시험문제 다 알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나오는 스타일도 매해 같거든요. 이 방향으로 공부시키면 이 선생님이 백프로 붙인다, 이런 담보가 있어요, 실제로. 그 학교에 붙이는 거죠, 내 자식을... 그 수학소조가 있는 데를 당국에서는 없애라고 합니다. 그런 특별한 소조를 없애라고 하는데 학교는... 학교 운영이 곤란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니까 수학 선생님이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우리 딸이 다니던 학교는, 구역에서 일인자 선생님이 수학 소조를 운영했어요. 그니까 이런 (우리 딸 같은) 학생들은 소학교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방법은... 사업을 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하고. “내가 이번에 그 학교 가겠는데 얼마면 해주시라오.” 이러면 물밑에서 다 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도 선택하고,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차이가 있고. 계층의 차이(女, 소, 2007).

돈의 가치가 많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대가를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많이 치루면서 자기 학생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학급도 교장들이 이제 입학할 때 개학식 하기 전에 자 요 구역은 선생님이 담임해라, 이쪽 구역은 선생님이 담임 해라 정해주지만 학부모들은 여기에서 물물거래가 또 진행이 되어야 하구요. 내가 이 선생님이 수학을 엄청 잘한다, 그러면 그럼 내가 이 선생님한테 꼭 가고 싶은데

이 지역이야, 그러면 그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의 밀거래가 진행되면 가는, 그런 지역적 차이가 있구요. 선택이죠. 학군 선택, 학교 선택, 학급 선택(女, 중, 2010).

#### 다. 소학교 교육의 목표는 제1중 진학: 공부를 시키려면, 군대 안 보내려면 제1중 보내야

소학교에서의 목표는 제1중을 보내는 것인데 제1중에 꼭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제1중은 “노력동원”이 없다.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는 일주일에 3~4일은 5교시나 6교시 수업이 끝나면 “노력동원”을 나갈 때가 많으며, 여름과 겨울에는 3주 동안 방학 대신 “농촌동원”을 나가는데(김정원 외[2014], p.174) 제1중에서는 이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매주 시험을 보고 그에 기초하여 등수를 매기는 등,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만들고 제1중을 졸업하면 대학은 가게 되어 있어 자녀가 어느 정도 공부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제1중 가기를 선망한다.

제1중이 소수정예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인 만큼 이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대학은 갈 수 있다.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도 학력이 낮은 학생을 일반 학교로 보내는 만큼 졸업하는 학생들의 능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제1중을 선호하는 것이 일단 입학하면 노력동원이 없고 대학 진학이 보장된다는 것에 있지만 더불어 중요한 요인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제1중의 조건이 경제난을 거치면서 군대 사정이 매우 열악해진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제1중에 대한 열망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 라. 제1중에 가는 학생은 모두 “중심학교” 학생

북한에도 이미 계층 구분이 진행되어 사는 지역에 따라 계층이 명확히 나뉜다. 북한교사들이 말하는 지역별 차이란 대부분 계층별 차이와 같은 의미이다. 시내 중심부에 주로 중상층이 집중되어 있다.

경제난 이전의 북한사회에서는 성분이 중요하여 학력수준과 큰 상관 없이 당 간부가 되는 것이 가능했었다고 하나 현재는 학력, 경제력, 권력은 서로 맞닿아 있다. 이에 유치원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기회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계층 간 차이이며 계층별로 자녀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가 분명히 구분된다. “잘 사는 집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는 인식은 공공연해졌고 계층별로 자녀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 “돈이나 셀 줄 알면 된다.”고

학교를 보내지 않는 가정이 있는 반면, 상층 자녀들은 악기 하나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갖추는 가운데 해외 유학이나 종합대학 진학을 기대하고 중간층에서는 공부나 예능 중 둘 가운데 한 가지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고등에) 우리 그때 시내 중심 구역에서, 90명이 다 중심학교에서 왔습니다. 주변 학교에서 오는 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심에서 산다는 자체는 잘 살고, 그 중심 구역이 다 잘 사는, 간부한다는 그 자체는, 북한은 잘 사는 거 자체는 부모가 똑똑하다고 보니까, 자식들도 똑똑하고, 그 전에는 간부집 자식들은 돌대가리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성분이 좋아야 간부가 되니까 간부집 자식이라는 게 저렇게 돌대가리다, 그런 말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간부집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잘사는 집 자식이 공부 잘하고, 이제는 다 그렇습니다(女, 중, 2014).

중산층 이하 분들은 공부 잘하든, 예능 잘하든 한 가지 해라, 이렇게 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중산층 이상 상급 지대, 상급 이상 분들은 베이스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피아노 잘 치고, 이걸 잘하고, 악기 하나는 기본으로 잘하고 공부 시키는 거죠. 앞으로 법대라든가, 해외라든가 그런 데 나가서, 종합대학이라든가 뭐 그런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간부집 자녀들과 여러 집들 대상해 보면, 피아노는 기본이다, 너 피아노는 그냥 하고, 외국어 학원가고, 일고등에 가서 공부한다, 개네들이 대학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개인교사들이 집에 와서 가르쳐주고 보충하고 하더라고요, 일고등에 다니면서도(女, 소, 2011).

#### 마. 학교 수학공부로는 제1증을 갈 수 없다: 학교 밖 과외교사를 통한 수학 집중훈련

이전과 달리 북한에 팽배해 있는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인식은 학교교육이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아니라는 점과 학교 내에 실력 있는 교사의 담임 학급에 배정 받기 위한 학부모들의 “사업”도 경제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학교 밖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1증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간혹 지역 배경이 좋지 않은 소학교(“주변 학교”)에 실력 있는 교사가 배치되어 제1증 진학 실적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교사는 바로 도 단위 학교(“중심 학교”)로 뽑혀 간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1증 시험 준비는 소학교 수학수업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학 소조 활동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식되고 있다. 제1증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소학교 교육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교재로 준비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교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교사는 모두 학교 밖으로 나가 돈을 받고 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자녀에게 제1중 진학 준비를 시키려는 부모들은 소학교 3학년 말경부터 학교 밖에서 실력 있는 팀 과외를 하는 등, 개별적으로 준비시키기 시작한다. 소학교를 졸업하는 단계에서 제1중 진학을 못해도 부모들은 수학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켜 놓으면 일반 중학교에 가서라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것이 이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다.

수학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열성적인 지원은 제1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수학 과목의 높은 비중과 난이도와 관련되어 있다. 다른 교과시험은 1차 시험으로 끝나는데 수학시험은 3차 시험까지 치러지며 다른 교과 시험점수의 만점은 50점인데 수학 교과는 100점이 만점이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sup>13)</sup> 이에 다른 교과보다 수학 실력을 쌓는 것이 제1중 진학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된다.

소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공부를 좀 잘 시키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소학교에서요. 원리교육을 정말 잘 알아듣기 쉽게 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한 둘은 있던 말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에게(학급에) (아이를)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사업해서 넣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 수준 가지고는 절대 1고등 못 갑니다. 1고등은 또 이 수학을 교재를 이만큼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개별지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수학 소조 선생님들도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니까 그걸 견디는 선생님들은 다 (학교 밖에)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서 다 돈을 받으며 하거든요... 학교에서 수학 소조를 해서 1고등 보내야겠다, 이거는 오산입니다. ...부모들이 열의라는 게 보통 아닙니다. ... 선생님이 00동에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짊어집니다. 열 명이 짜가지고 집까지 사줍니다. 집까지 시내 중심으로 싸 가지고, 싸구려 집이지만... 열 명이서 더 붙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부모들 받지 말라, 많이 하면 우리 아이한테 역량이 집중이 안된다... 1년 동안 또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제1중에) 붙여야 인기가 나니까 죽기 살기로 한다는 말입니다(女, 중, 2014).

13) 제1중 입학은 소학교 졸업 시에 이루어지지만 초급중학교 3학년 졸업 시에 다시 제1중에 편입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1중은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일반 중학교로 보내고 일반중의 우수한 학생을 중학교 3학년 졸업 단계에서 선발하여 입학시킨다.

### 3. 중등교육: 중학교<sup>14)</sup>

#### 가. 제1중의 기본 목표는 중앙대학

제1중에 입학하게 되면 모두가 대학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남학생도 군대를 가지 않고 대학을 가고 난 후 군대를 가게 한다. 간부가 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기도 한다. 제1중은 기본적으로 중앙대학<sup>15)</sup>을 목표로 하지만 원하면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 등의 지방대학을 가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제1중은 도 단위에 1개씩 있으므로 기숙사생활을 전제로 한다. 집을 떠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제1중을 다니기 어렵다. 이에 학업능력이 뛰어나도 경제적 배경이 받쳐 주지 않으면 제1중을 갈 의지를 갖기 어렵다. 제1중을 다니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집 근처 일반 학교로 옮기기도 한다.

#### 나. 이전에는 외국 나갈 기회가 있는 외국어학원이 선호되었으나,

##### 제1중 나온 뒤로는 선호도 하락

북한에는 제1중 외에도 소학교 졸업 후에 특기생들을 뽑는 외국어학원, 체육학원, 예술학원 등이 있다. 특히 외국어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외국어학원을 주로 가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외국어학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제1중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외국어학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외국어학원을 나오면 외국어대학을 갈 수 있고 외국어대학을 가게 되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지만, 실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학교교사가 된다는 점도 외국어학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 주요 이유다.

외국어학원 나와야 외대 갈 수 있고, 외대 가면 해외 나갈 수 있는... 대체로 보면 거의 몇 명 없더라구요, 1기가 졸업 했잖아요 그러면 다 중학교 교사가 기본으로. 그러니까, 외국은 한 둘이 가고, 그래서 그냥 교사예요, 영어교사.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14) 북한에서 중학교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뉘어진 것은 2013년부터이다. 따라서 나뉘어진 중학교 교육이 갖는 의미를 현시점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김담희에서는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초급, 고급을 포함한 중학교 6년 전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5) 북한의 중앙대학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며 반드시 수도인 평양에 있는 대학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학생 선발단위가 전국인 가, 지역인가로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이 구분된다.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진광산대학은 청진에 있지만 중앙대학이다.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은 지방대학이다. 그러나 사범대학 중 김형직 사범대학은 중앙대학이며 이 대학 출신은 지방 사범대학의 교원이 된다.

제1중이 나오면서부터(女, 중, 2014).

#### 다. 일반 중학교 교육의 1차적 목표는 (지방)대학 입학, 그러나 남학생은 군 입대가 일반적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중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목표는 대학 입학이다. 한 때 제1중이 군 단위까지 확대되었을 때에는 제1중에 가야 대학을 가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것이 도 단위 1개 수준으로 다시 축소되면서 일반 중학교에서도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고등이 없어지고, 일반 고등중학교에서 최근에 대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중학교 4학년 때부터 벌써 부모들이 대학 보내줬다면 준비 다하고 그 교사들한테 붙여 줘요. 수학이라든가 이런 교사들한테. 전문 과외를 수업을 하고 또 그 교사들한테 방과 후 해가지고(男, 중, 2010).

그러나 일반 중학교의 경우, 대학 입학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군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남학생이라면 모두가 군대를 가야 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군대를 전혀 안 보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남학생들은 신체검사에 합격되기만 하면 무조건 군대를 가는 분위기다.

이전에는 군대에 가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나 현재는 군대에 대한 인식이 전과 달라져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군대를 보내지 않으려 하고, 돈을 써서라도 신체검사에 불합격시켜 군대가 아닌 대학에 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고 대학을 가는 남학생 수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

제가 일반 중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중학교 보면 남학생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게 하거든요. 신체검사에 합격했다고 하면 백프로 다 군대에요. 근데 개중에는 부모들이 이제 제 자식은 아까워서 군대 안 보내고 대학에 좀 보내겠다, 어쨌든 북한에서 남자들은 무조건 군경력을 다 져야 되니까 무조건 군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모들이 군대에 보내서 뭘 하나, 군대에 갔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병만 나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부 부모들은 막 돈을 써서라도 신체검사에 자기 자식 불합격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2차로 대학에 가는 거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첫째가 대학이잖아요. 대학 목표로 하고, 본인이 지망하면 군대에 간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는

아예 군대를 안 보냈어요. 저도 군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군대를 아예 안 보내더라구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전부 다 대학에 가고 저도 이제 대학에 다니다가 군대에 갔었는데 제가 그 중학교 교사를 할 당시에는 남학생들은 무조건 군대. 뭐 북한은 군대를 육성해요, 꼭 그 인원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이 돈을 써서 그런 학생들은 대학에 가고, 다 신체검사에서 미리 떨궈 버리는 거예요. 실제 자식이 병은 없는데. 미리 떨궈 가지고 대학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퍼센트 수가 엄청 작죠. 여학생들은 조금 되더라구요, 프로 수가. 근데 남학생 프로 수는...(男, 중, 2010).

일반 중학교에서 중앙대학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일반 중학교에는 중앙대학 “폰트”(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가 나오지 않는다. 일반 중학교에서 중앙대학을 가는 경우는 학과 경연에서 최우등상을 받았을 때 정도이다. 이때에는 중앙대학에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지니게 된다.

일반 중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 수는 대략 전문학교를 합쳐서 10% 내외라 인식되고 있는데 남학생들은 주로 군대를 가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대학을 더 많이 간다.

제1증을 보내는 것이 모든 학부모들의 목표는 아니다. 도 단위로 한 개 정도 있는 제1중에 갈 수 있는 규모는 매우 작아서 “백 명 중 한 명”이 제1중에 간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일반 중학교를 진학하면 중앙대학을 갈 수는 없으나, 지방대학에는 갈 수 있고 지방대학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 자녀가 제1중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통 도 단위로 1개 있는 제1중에 보내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고생시키기보다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지방대학에 보내려 하는 학부모도 있다. 여간해서 기대하기 어려운 제1증을 선호하기보다는 보통은 일반 중학교를 가서 학교 안팎에서 사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여 대학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일반 교육에서도 좀 돈을 투자해서 개별 교사라든가 개별적으로 공부시켜서 공부하면 대학에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죠(女, 중, 2010).

영재라고 할 때는 진짜 백에 한 명이고, 뭐 웬만큼 해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선호 안 해요. 선호 안 하고, 일반 대학을 많이 선호해요. 사범대, 교대, 의대, 외국어대학 이런 걸 많이 선호해요. 일반대 가기를 엄마들은...(女, 소, 2011).

## 라. 될만한 데에 투자한다

일반 중학교 교육은 대학에 갈 만한 학생들을 미리 뽑아 집중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을 보내는 것이 학교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할 만한 학생수준과 학부모 배경이 갖추어진 학생들에게 학교의 교육력이 집중된다.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소조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들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사회동원에서 제외된다.

학교 교장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무조건 대학 가야하는데 타 작업 빼 달라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수업 끝나고 타 작업, 학교에 일 많이 동원되는데 그때는 그런 애들은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학과 경연을 해요. 학과 경연을 해서... 학교 등수를 내 가지고, 교원 평가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어느 중학교 몇 등 몇 등 하는 애들을 그렇게 키워 가지고 개네들은 거길 계속 내보내는 거죠(男, 중, 2013).

## 마. 일반 중학교에서 대학 가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돈(사교육, 뇌물)이 중요하다

중학교에서의 대입 준비는 일반적으로 4학년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실 개별 학생이 대입을 준비하는 시기는 모두 다를 수 있으나 중학교 3학년까지는 주로 소학교 교육의 연장이라 이해하는 가운데 시험 준비를 4학년부턴 시작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sup>16)</sup>

일반 중학교에서도 가장 큰 목표가 대학 입학이지만 대학 입학이 반드시 학생의 실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 실력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지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사적 지원은 소조에의 지원, 과외 지원 등과 같은 실력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투자뿐만 아니라 학교 점수를 올리거나 대학 입학자격 추천(“폰트”)을 받아 내는 데에 투자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 학교에서의 대입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 있는 교사를 찾아 과외를 하는 것이다.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는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내에서는 수학 교사가 운영하는 수학 소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에서는 전문 과외 교사를 “붙여 준다.”

간혹 학교 교사에게 바치는 뇌물이 학교성적에 작용하기도 하고 학부모가 대학 입학시험 응시 자격(“폰트”)을 뇌물로 받아 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일반 중학교에서는 ‘돈’이 여러 차원에서 작용한다. 제1중에서는 ‘돈’이 작용하지 않으며 이것이 학부모들이 자녀를

16)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가 6년제로 운영될 때에도 중학교 내에서 1~3학년, 4~6학년 사이에 암묵적인 구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중에 보내려 애쓰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1고등은 완전 실력주의입니다. 일등 하는 거 선생님들 돈 줘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일등부터 마지막까지 0.01도 그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 어느 건 봐주고 어느 건 못 봐주고, 그거는 선생이 손 안 땁니다. 받아먹고 등수 올려 주고 이런 게 없으니깐 다 자기 실력이 나오니까(女, 중, 2014).

일반중학교도 물론 대학 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대학 들어가자면 돈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학 붙자면 어지간히 돈만 쓰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방대학은. 중앙대학은 실력인데 지방대학은 돈만 쓰면 들어갑니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 돈이면은 1고등에다 얹혀 놓고, 마지막으로 따라가더라도 공부시키면, 애도 돈 안 들이고 공부시키고(女, 중, 2010).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근본이 있으니까. 교육을 무시하거나 성적을 막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괜히 성적을 무시하고 돈만 중시했다가는 또 그 담당 업무를 보는 분도 그 자리에 있기가 좀 어렵죠. 성적도 중시한다, 그러면서 거기에..(男, 중, 2010).

## 바. 특출한 특기 소유는 대학 가는 또 다른 길

일반 중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또 다른 길은 특기로 가는 것이다. 예술 축전에 참가하여 학교의 이름을 알리려는 대학들은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뽑는다.<sup>17)</sup> 의과대학이든, 공과대학이든 대학의 종류를 불문하고 학과 성적과는 전혀 관계 없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축구 등의 체육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등의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뽑는다.

지금 일반 중학교에서 대학을 간다는 건 솔직히 실력으로는 어려워요. 특기적성으로 가지 않으면, 사범대학 같은 것도 그렇고 의대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제가 키운 애들이 거기 가서 실력으로 안 붙어요. 그니까 공부로 안 붙는다는 거죠. 일단 일곱 개 과목시험 쪽 치고 마지막에 특기적성시험 치거든요, 거기서 내가 악기를 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학생은 그것으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을 잘하잖아요, 내가 공부 잘 못해요, 그런데 체육을 정말 잘해요, 그러면 대학에 붙는 거예요. 어느

17) 그러나 이는 소수이다.

대학이든(女, 중, 2014).

일반 중학교에서 붙었는데 대학교에 가보니까 대학교의 명예를 걸고 하는, 예를 들어 뭐 대학교 때 예술의 왕, 체육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대학교의 명예를 걸고 예술 축전에 가는 거예요. ... 만약에 대학에서 한 30명을 일학년으로 뽑는다고 하면 한두 명 아주 극소수로 뽑습니다. 특기라면 아주 잘하는 게 특기이고 대충 하면 안되고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특기. 그런 특기생들은 붙는 거죠(女, 소, 2007).

#### 사. 학교 평정서는 “조직생활을 하면 그냥 따라 다닌다”:

##### 중학교까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 하는 이유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에서는 소년단 활동, 고급중학교에서는 청년동맹 활동이 진행된다. 이 활동을 지도하는 소년단지도원, 청년동맹지도원은 교장, 부교장과 동급의 위치에 있다. 북한교사들은 이를 학교 내 “삼권분립”이라 칭한다. 청년동맹지도원은 주로 정치사상 교육을 중심으로 학급 담임교사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sup>18)</sup> 학생들의 정치사상교육(“교양”)을 책임진다. 학교장, 담임교사, 지도원 등 3명이 한 학생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생활기록부와 같은 학생에 대한 평정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청년동맹지도원도 의견을 기록한다. 청년동맹지도원의 비준이 없으면 평정서를 내보낼 수도 없다. 이 평정서는 평생을 자신을 따라다니며 평가 받게 하는 주요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서 평정을 잘 받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다. 군대를 갈 때에도 이것을 받아 가야 하고 중학교 졸업 후 기능공 학교를 간다고 할 때에도 우등 이상의 학업성적이 포함되어 있는 평정서를 받아 가야 한다. 이후 특정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평정서가 따라다닌다.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평생 따라다닐 자신의 성적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의 학교성적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한다.

18) 교장은 학교의 행정을 책임지고 부교장은 교사들의 교수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 4. 고등교육

### 가. 대학

#### 1) 대학에 가는 이유: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간부가 되기 위해

소수의 학생만이 대학을 진학하지만 중학교 교육의 목표가 대학 진학에 있는 것은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북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 의사, 법관 등, 전문적 직업을 갖기 위해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하며 당 간부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 복무와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대학 졸업장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에 군대를 제대한 군인들이 졸업에 4년이나 5년이 걸리는 일반 대학보다는 2, 3년제 단과대학을 진학하여 쉽게 대학 졸업장을 얻고자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2년제 교원대학이 “제대군인”들에게 인기 있는 대학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2) 대학 진학은 군대를 일찍 가지 않기 위한 수단이기도

북한의 모든 남자에게 군복무는 사회적 성취를 위한 핵심 조건이다. 군복무 경력 없이 북한사회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중학교 6년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간부가 되려는 사람은 대학 졸업 후 군대를 간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배치 받는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중에 당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고 바로 교사로 발령을 받는다.

직통생들은,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온 남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또 군대에 다 가더라고요. 군대에 가서 자연학과목 대학을 다닌 학생하고 사회학과목 학부를 다닌 학생하고 또 달라요. 자연학과목을 다녔다, 하면 3년, 사회학과목을 다녔다, 하면 5년. 이런 식으로 군복무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될까, 했는데 저는 그 군복무를 해보니까 딱 3년 되니까 제대시켜서 보내더라고요(男, 중, 2010).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되도록 부모들이 낮은 나이에 자녀를 군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대학 진학 선호를 높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다고 했을 때 중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은 만 16세다. 만 7세에 소학교를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면 만 17세에 중학교를 졸업한다. 부모들은 좀 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이에 군대를 보내고 싶어 우선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한다. 대학을 나온 사람은 3~5년만 군복무를 하는 것도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이유가 된다.

### 3)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은 뭔가 다르다

대학이 간부가 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수준이 다르다고 평가된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소학교나 중학교에서와는 질이 다른 강의를 경험하고 보다 특별한 집단들이 모여 만들어 가는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의 수준”이 다르다고 인식하게 한다. 실제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상관 없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갖는 사회적 위상이 매우 높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보면 장사꾼들 짝 놓고 봐도 대학 졸업한 사람이 다릅니다. 벌써 인식하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르고. 북한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한 말이 다르고, 대학 졸업생하고 하는 말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수준이. 대학 졸업생은 어딘가 모르게 좀 달라요. 뭐든 그래요, 일반 사람도(女, 중, 2014).

대학이 갖는 사회적 위상이 이전과는 달라지기는 했다. 북한이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적 외연이 넓어지면서 학력이 갖는 힘보다 ‘돈’이 갖는 힘이 더 커지고 있어 대학을 나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일반적으로 천시해 온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더 위세를 갖는다.

일단 대학 갔다. 못 갔다 하는 주변 인식이 많이 달라져요. 주변에서 아 재네 집 딸은 대학 갔는데, 우리 애는 왜 못 가지? 이런 인식. 재는 대학 다녔으니까 조금 윤행하게 볼 수 있는, 다른 주변 사람들이 재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되겠다, 말도 좀 가려서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부터는 그게 상당히 없어

졌어요. 대학을 나와서 재는 잘사니? 사회인식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장사해서 우리 집은 부모가 장사해서 돈이 많아, 이렇게 되면 남들 대학 다녔으면 뭐해, 집에 만날 먹을 거 없어서 학생들한테 달라고 하는데 저러느니, 우리집이 부자야, 차가 있어, 이런 인식이 또 있죠. 시기적으로 좀 많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女, 소, 2007).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는 인식을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다.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지적능력을 지닌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가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의해 졸업하고 모두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대학 학력을 지녔다는 것이 갖는 사회적 위신은 매우 높다.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대학을 졸업한 사람, 입당한 사람. 근데 최근에는 선호도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외국에 다닌 사람 뭐(女, 소, 2007).

대학에 간다는 자체는 가정의 등급이 좀 높아야 되고... 자식을 키우는 데도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고(女, 중, 2010).

일반적으로 볼 때 엄마 아빠가 다 대학을 다닌 분들이 또 자식들도 대학 가고 대나무에서 대 나오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는(女, 소, 2011).

#### 4) 통신과정 졸업 등 기타 고등교육 과정은 차별이 있어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소학교나 중학교 학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정규 학교교육 외의 방법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통신대학 등의 제도로 대학 학력을 획득할 수 있다.

물론 통신과정으로 획득한 대학 학력이 정규대학 학력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간부로 등용할 사람을 선발할 때에도 통신대학 졸업생은 걸러지곤 한다. 제도상으로는 통신대학 졸업이 정규대학 졸업과 그 자격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통신대학 졸업을 정규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주간과 통신대학) 당연히 차이가 있죠. 통신대학 그거 대학으로 쳐주나. 안 쳐줬던 같아요... 서류가 쪽 올라 와요, 서류만 놓고 그 본인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간부를 비준하는 사람들이 책상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통신? 뭐 그저 그렇겠지, 꺼 버리는 거예요. 주간? 아 그래 주간

대학이 낫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 도당에 가서... 북한은 이게 컴퓨터가 나가니까 서류를 글로 다 썼거든요. 글 쓰러 갔다는데 그 옆에 배치를 하는 사람 그 한 분이 와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거 누구 지도원 오라, 해가지고 오더니 이거 통신이야? 다시 해서 서류 올려 보내지 마라, 통신이면, 잘라라. 통신이라고 무조건 보지도 않고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있더라구요. 북한은(男, 중, 2010).

통신과정은 부족한 인적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에 부족한 교사 인력문제 해결에도 통신과정이 이용된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농촌지역에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는 대졸자가 넘쳐 나고 농촌지역에는 항상 교사가 부족하다. 이에 농촌지역에는 전문학교 졸업자에게 교사로 일단 일하게 하고 교원대나 사범대 통신과정을 다니게 하여 자격을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북한을 보면, 그냥 남한보다 북한이 더하죠, 시내에 집중되거든요. 시내에는 교사들이 넘쳐 나요. 군에 있는 사람들도 막 와 가지고...농촌에는 교사가 부족해요. 왜냐면 대학 졸업생들이 같이 대학 졸업하고 돈 들여서 같이 졸업하고 군(郡)에는 안 가려고 하죠. 군에 나가면은 그만큼 자기 경제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군에 나가서 교사를 하기보다는 그 아무리 대학 졸업했어도 졸업증을 집에다 깔아 놓고 장사를 하는 게 낫거든요. 누가 이제 힘든데, 조건도 안 좋은데 집을 떠나서 군(郡)에 가려고 안 하거든요...(男, 중, 2010).

저희 교사 분도 하나 군(郡) 전문학교 졸업하고 교사 방침이 떨어졌어요, 교사가 뭐 부족하니까 그 전문학교 학생 추천해 가지고 교사를 하면서 통신으로 해라(男, 중, 2013).

통신과정 중에서도 명망 있는 대학의 통신과정은 상대적으로 더 큰 권위를 지닌다. 예를 들어 중앙대학인 청진광산금속대학교 통신과정 같은 것에는 상당한 권위를 부여한다.

중학교 졸업하고 그 연합기업소로 현장 배치되어 가지고 그 공장 지배인까지 되는 것 봤는데, 통신 졸업하더라구요. 여기 있다 보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고 또 통신 졸업하고 위로 올라가고(女, 중, 2010).

그니까 연합기업소에 들어왔으면 광대(광산대) 같은 건 더 그렇잖아요. 뭐 광대 그런 데는 통신이라면 확실하게 인정해요. 그건 진짜 인정 해줍니다(女, 중, 2014).

넓은 범위에서 보면 주간을 더 인정해 주는데 특징적인, 정말 기술을 우선시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진짜...(男, 중, 2013).

## 5) 대학 교육은 “원리교육”

북한에서의 대학 교육은 “원리교육”이라는 점에서 남한에서의 대학 교육과 다르다고 북한교사들은 강조한다. 무엇을 위해 “써먹는” 교육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교육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한의 대학 교육은 “써먹기 위한” 것을 가르치는 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배운 것으로 돈을 버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북한의 대학 교육에서는 자격증 취득 같은 것을 중시하지 않으며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 그 자체를 중시한다.

직업 때문에 대학이 목표라고 보지는 않아요. 대학은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 원리를 활용해 가지고 그 조직에 참여하게 하는...(男, 중, 2013).

그니까 대학 지식이... 아니 대학은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때 지식 하나도 써먹지 못 하거든요. 대학 땀 다른 거 배웠는데 사회 나와서 다른 거. 그니까 책 보는 방법, 그런 걸 배운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무슨 광석이 있다 하면, 북한은 그 광석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원리교육을 한다면 여기서(남한에서)는 이 광석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런 교육으로 제 생각에는. 북한에는 원리교육을...(女, 중, 2010).

그리고 여기는 좀 시험 위주. 시험 위주로 많이 공부하더라고요. 학원도 그렇고, 뭐 어디나 가면 이 시험 어찌고 저찌고, 자격증,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학원이나 자격증 취득 이런 게 없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여기는 주로 시험 위주가 많더라고요(女, 소, 2011).

## 6) 종결교육으로서의 대학 교육

북한에서 대학 교육은 평생 이루어지는 교육 중 한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한

사람이 받아야 할 교육이 종결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학이 인간을 완성시켜 준다.”는 표현도 이러한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을 졸업하면 “공부를 다 한 것”이 되며 대학원 교육이나 평생교육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근데 대학이 인간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지. 그 지식만이 아니라 그 인간을 완성. 내 여기 와서 보니까 내 전공이 아니어도 그 사회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아니까. 인간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지(女, 소, 2011).

자본주의 경제원리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일단 다 공부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女, 중, 2014).

## 나. 박사원

### 1) 박사원 진학자는 매우 소수

북한에서 대학원 과정인 박사원을 진학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다. 집담회 참여 교사들은 모두 평양 외의 지역 교사들이었으므로 이들에게 박사원 교육은 매우 먼 것이었다. 이들에 의하면 지방 사범대학의 경우,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게 되면 그 대학 ‘교원’<sup>19)</sup>으로 남게 되고 대학교원으로 활동하면서 박사원 과정을 이수하여 준박사 학위를 취득한다.<sup>20)</sup> 평양 출신 북한 이탈주민에 따르면, 평양의 경우에도 박사원에 진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가장 대표적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에도 전체 재학생의 10% 정도만 박사원에 진학한다고 한다. 지방에는 대학교원이 부족하지만 평양의 대학들에는 교원이 어느 정도 충원되어 있어 준박사 학위를 받아도 평양 내 대학 교원으로 배치 받는 경우는 50% 미만이고 지방대학 교원이나 연구소 연구사로, 요즈음에는 중앙 행정기구에 배치되기도 한다. 중앙 행정기구에서 일할 때에도 준박사 학위가 있으면 승진이 빠르다.

준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학과마다 정해져 있는 강의를 이수해야 하고, 3년간 소논문 세 편을 학술잡지에 실어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는 국가가 관장하며 그 과정도 까다로워서 기본적으로는 준박사 학위 획득이 매우 어렵다.

이에 일반 대중에게 박사원 과정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매우 멀리 있는 교육기회이며, 이에 북한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교사들조차도 대학 교육을 종결교육으로 규정한다.

19) 북한에서는 대학교수를 대학교원이라 부른다.

20) 기본적으로 대학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준박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준박사 학위 없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조교원’이라 부른다.



## 2) 박사를 “총리처럼 높게 본다”

북한에서 박사 학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어려워서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한 학부에 박사가 학부장 한 명뿐인 경우가 많다. 한 평양 출신 북한 이탈주민에 따르면, 평양의 가장 중심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도 박사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평양의 김책공대, 의학대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박사 학위는 대학에서 교원으로 활동하면서 획득하게 되는데 대학교원 중에서 특별히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선발되어 박사원 박사반으로 가게 된다. 이들에게는 3년간 강의를 면제하며 이 기간 동안 박사논문에만 전념하도록 보장한다. 박사 학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3년간 수준 높은 소논문 세 편을 작성하여 잡지에 게재해야 하며 더불어 박사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박사를 “총리처럼 완전히 높게 본다.”고 북한교사들은 표현한다. 이전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젊은 박사”를 양성하라는 방침에 의해 35세 박사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젊은 박사도 매우 “높게 본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박사가 된다는 것은 “너무 높이 있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 3) 지방대학에서의 준박사, 박사 학위는 명예롭지만 선망되는 것은 아니나

### 평양의 대학교원이 되는 것은 지방 엘리트들의 최고 선망

준박사, 박사들이 매우 높이 평가되지만 이들은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집단 중 하나였다. 배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기에 지방에서는 교원 중에서 대학교원이 가장 살기가 어려웠다. 국가의 배급이 중단되면서 교사들이 학부모의 지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유치원교원의 경제적 상황이 가장 나았고 그 다음이 소학교이며 대학의 경우에는 거의 학부모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방에서 대학교원을 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는 하나 그리 선망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란 거는, 박사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낼 걱정을 한다. 이 딸을 들었어요. 평성에 장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희들은 박사를 아주 총리처럼 마냥 크고 높게 봤거든요...(女, 중, 2014).

근데 그때 우리는 준박사를 죽박사라고 했습니다. 죽을 먹는다, 이 소리죠(女, 소, 2007).

그러나 평양 출신 교원에 따르면, 평양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대학교원이 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 이것은 지방 출신 학생이 평양시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방의 우수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 법으로 평양 거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지방 출신 학생이 평양 내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출신 지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준박사 학위를 받고 평양 내 대학의 교원이 되면 평양 시민증을 발급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평양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 III. 북한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이나 북한의 학교교육도 명시된 공적목표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구성원들이 북한의 각급 학교교육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포착되는 북한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과 조직이 더 이상 개인 생존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북한 사회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개인 스스로 지녀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대학 진학 욕구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사회 조직에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구성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대학 진학이나 외국어, 예체능과 같은 ‘돈’이 되는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존 체제에서 강조되었던 ‘성분’이 갖는 위력이 약화되고 ‘돈’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리게 된 대학 교육기회는 ‘대학 진학’에의 의지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적 이익 추구가 공적 의무 이행보다 높은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게 되면서 대학 진학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돈’은 가족들 사이에 나눌 수 있고 나누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공부’는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온전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부’가 ‘돈’보다 더욱 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공부’를 잘하면 사회 노력동원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부’는 ‘이기적인 것’으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기적인 이유로 사회적 의무가 면제된

다는 점이 역으로 사적 이익 추구 행위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치원 교육 단계에서부터 계층 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의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 성분의 위력이 약화된 상황은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특기교육,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제1중 진학을 위한 교과교육(특히 수학) 등, 각급 학교교육에서 발휘되는 ‘돈’의 힘을 키우고 있다. 이는 대학 진학을 보장하는 제1중 진학 단계에서의 계층 차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특정 계층에서 온 학생들이 모인 제1중학교 교육과 일반 중학교 교육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돈’의 힘으로 학력과 특기를 획득하여 소수만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 진학에 성공하게 되는 구조가 이제 북한사회에서 기본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확대되는 개인 소유의 돈의 힘은 공적인 학교제도의 힘을 무력화시켜 12년 의무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육에서의 시장화다. 대표적인 중앙통제기구였던 북한의 학교는 경제난으로 인한 중앙권력 상실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영역 중 하나였다. 학교 운영의 경제적 토대를 당이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학교는 학부모의 지원에 의지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학교가 재력을 가진 개별 학부모들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부모, 특히 재력을 지닌 학부모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 내에서 실력 있는 교사를 자녀의 담임교사로 ‘선택’한다. 개별 학부모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물적 규모만큼 학교가 그 학부모의 자녀를 위해 대응하게 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적 소유의 확대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절박한 상황을 거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는 학교교육을 매우 사적인 영역으로 전환시켰고, 이는 학교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여 계층 격차를 확대시켜 왔다. 이러한 북한의 학교교육의 변화 흐름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사회에서 사적 소유 확대 욕구는 큰 전환점이 없는 한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것이며, 이와 맞물려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관련한 계층 격차 역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이후 25년 동안 동독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회고하는 옛 동독 교사 출신 독일 작센안할트 주 문화부 과장 Zeymer(2015)는 갑자기 맞았던 독일 통일 국면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추진이 중요했었지만, 그 신속성보다 더욱 필요했던 것은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한 신중하고도 정확한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한 통일을 교육영역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공식 문서로 표현되어 있는 북한의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북한 교육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아닌가 한다.

## 참고문헌

- 김지수,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13.
- 김정원·김지수·한승대, 「북한 초·중등교육 과정과 교과서 정책 변화 방향」, 『한국교육』, 제42권 제4호, 2015a, pp.1~26.
- 김정원·김지수·양희준·강구섭·나귀수·신동훈·김선,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5b.
- 남성욱·정유석,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 서울: 살림지식출판사, 2012.
- 이우영, 「200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 특징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2권 제11호, 2011, pp.21~34.
-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4호, 2007, pp.109~131.
- DPRK,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ducation Commission, 2014.
- Zeymer, B, 「구동독지역의 학교체제 개편 - 작센안할트주의 교육청 개편 및 서독 자매주(니더작센)와의 협력사례」, 2015 한독 통일역사교육 포럼, 한국교육개발원, pp.225~238, 2015.
- 〈웹사이트〉
- 북한자료센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369](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369), 검색일: 2016. 5. 23).
- 북한자료센터([http://munibook.unikorea.go.kr/?sub\\_name=information&cate=1&state=view&idx=157&page=10&ste](http://munibook.unikorea.go.kr/?sub_name=information&cate=1&state=view&idx=157&page=10&ste), 검색일: 2016. 5. 20).